

명예훼손적 반론은 의사표현의 특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Reynolds v. Pegler 223 F. 2d 429(2d Cir 1955)

이 사건은 1949년 11월 29일에 미국의 전국에서 많은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는 피고인 허스트연합출판사(Hearst Consolidated Publication Inc.)에 의해 공표되고, 웨스트브룩 페글러(Westbrook Pegler)가 쓴 기사에 근거한 명예훼손 소송이다. 레이놀즈가 페글러 등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페글러 또한 레이놀즈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페글러에 의한 소송은 배심에 의해 레이놀즈의 무죄가 확인되었고, 레이놀즈에 의한 소송은 모든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 판결결과는 보상적 손해배상금으로 모든 피고들에게 총 1달러를, 그리고 추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페글러에게 10만 달러를, 허스트주식회사에 5만달러를, 그리고 허스트연합출판사에게 2만 5천 달러를, 또는 합쳐서 1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유죄판결이었다.(법이 원고의 보상금으로 인한 수입에 따른 세금을 면제하고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제정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레이놀즈에게 「실질적」으로 40만 달러에 상당하는 지불보증수표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이 지상논쟁은 브라운(Brown)이 사망한 후 약 10년이 되는 1949년 11월 20일자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 북 리뷰(The New York Herald Tribune Book Review)에 원고(레이놀즈)가 기술한 데일 크라머(Dale Kramer)의 『그의 친구들이 회상하는 헐리우드 브라운』에 대한 서평과 위에서 언급한 1949년 11월 29일자 저널 아메리칸(Journal-American)에 공표된 『헤이우드 브라운과 켄틴 레이놀즈에 관해』라는 페글러의 기사에서 발생했다.

순회재판소의 메디나(Medina)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크라머의 책으로부터 인용했든, 인용하지 않았든 간에 또는 책 전체에 근거를 두었든 두지 않았든 간에, 원고인 레이놀즈가 그의 글에서 페글러가 브라운을 거짓말장이라고 불렀고, 브라운이 이 거짓주장에 의한 비난때문에 근심에 잠기게 되었고 그리고 비록 브라운이 그 당시에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도, 그가 이 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나 허약하게 된 결과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피고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 살인혐의」로 설명되고 있다. 페글러의 기사는 레이놀즈가 그의 글에서도 밝힌 이 혐의에 대한 반론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본론을 떠나서 지엽적인 것들로 흥미를 돋운 첫 부분의 몇 단락들은 「브라운이 악명높은 거짓말장이었다」, 「그가 지저분한 싸움꾼이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논쟁으로 점철되었다」고 쓰여진 데 대한 반론과 유사한 것으로 용인된다. 그리고 브라운이 페글러에 의해서 그에 관해 기술된 내용들 때문에 낙담에 잠긴 결과 사망했다는 언급은 거의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앞부분의 단락들 가운데 역시 원고가 쓰고자 하는 글의 의도에 대한 몇 가지 핵심들이 지적되었다. 페글러의 기사는 「레이놀즈가 약간의 그릇된 인상을 주고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글들은 피고인 페글러의 원고인 레이놀즈에 대한 통렬하고 공공연한 비난이다. 즉 심리판사(주 : 뉴욕지방법원의 웨인필드 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의 글은 원고의 크라머의 저서에 대한 서평의 어떤 부분과도 적합하지 않다. 원고와 관련된 피고의 많은 문장들이 일반적으로 본질적 명예훼손이고,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원고를 「공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비방하고 또는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소송이 된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고 있다. 즉 레이놀즈와 여자친구가 대로에서 나체로 있었다는 것, 그 이웃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레이놀즈와 매춘부(주 : 레이놀즈의 여자친구를 지칭함)가 함께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을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것, 레이놀즈가 그녀와 함께 헤이우드의 무덤에 갔을 때, 그가 그 미망인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 레이놀즈가 「전쟁중에 대단히 크게 개인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고 「후에 전시의 청부사건에 관련되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르선 형제들의 부당이익물인 2 천 달러를 편취했다」 는 것, 그가 런던 격전의 용감한 전쟁특파원인 것처럼 가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 이라는 것, 그리고 클레어 부스가 「그의 숨겨진 더러운 것」 을 벗겼고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비겁한 것을 차고문에서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것들 등이다. 이런 혐의 사실들이 해석상 무해하고, 무죄일 수 있고, 악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잡다한 변명들이 피고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대체적으로 진가 또는 실체가 없다. 예를 들면, 「완전하게 고귀한 사람들은 나체주의자들이라」 는 것, 「관습법에서 나체주의는 범죄가 아니라」 는 것, 무덤에 간 것은 「브라운의 사망 후 몇 년」 되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형제중의 하나에게, 사망한 형제의 아내에 대해 청혼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는 것은 같은 모세의 율법이 인용된 것 등이다. 소송사건 적요서에 있는 피고의 항변은 「익살스러운 말투로 정략적으로 으시대면서」 「비겁한 것」 에 관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그 기사를 읽음으로써 대단히 즐거웠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풍자를 동일한 시각에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호기심을 끄는 무익한 종류의 익살이다. 결국 명예훼손적 혐의가 있는, 기사란 어떤 부분만 가지고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사를 가지고서 판단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들은 심리판사가 1949 년 11 월 29 일자의 페글러의 기사가 「부여된 반론의 특권의 한계를 벗어났」 고 제정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법적으로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은 뉴욕주법아래서 이 쟁점이 필연적으로 배심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분명히 항변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부여된 반론의 특권이 변호하는 입장에서 법에 호소함으로써 모색되어야 하는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의 각기 다른 기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항변은 「부여된」 특권 중에 하나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만약 명예훼손소혐의 내용이 선의로 공표되었다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 한, 비록 그 항변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명예훼손적인 혐의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최초의 공격(주 : 비난을 의미함)에 관한 반론과 같은 항변으로 정당화된다면, 그것들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뉴욕 주의 사례들이 일심판사로 하여금 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혐의내용이 최초의 공격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 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뉴욕 법정들은 만약 그 명예훼손적인 혐의가 원고로 하여금 주도권을 잡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적인 혐의는 충족된다는 것을 지지해 오고있다. 만약 적정성이 결여된다면, 항변의 특권이 상실되므로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만약 법정이 명예훼손혐의의 내용이 원고가 공격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또는 원고가 공격하게 된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사건은 반론의 특권을 발동하기에 적절한 사건이고, 그리고 항변이 실패한 경우에 남은 문제는 피고의 항변이 악의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피고가 명예훼손적 혐의의 내용을 선의로 공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배심의 기능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견해를 달리할지도 모르는 논제이다…… 이 사건에서 웨인펠드 판사는 페글러의 기사내용이 레이놀즈의 서평에 포함된 내용 또는 레이놀즈가 그것을 쓰게 된 동기와 관련이 없었으나, 레이놀즈에 대한 페글러의 전체적인 공격이 서평에서 레이놀즈가 페글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가 원한을 품게 된 개연성을 고취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명백하다. 우리들은 두개의 글들을 모두 검토했고, 그리고 이 판결이 정당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따라서 항변의 특권을 기각한데는 하자가 없었다.』 123 F. Supp.36, 40, 41(S.D.N.Y. 1954)

뉴욕지방법원의 웨인펠드 판사는 그의 견해에서, 페글러쪽에 대해 현실적 악의에 관한 증거 또는 그가 「원고를 해하기 위해 계산된 계획」이라고 칭하는 것을 확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첫째, 모든 피고들의 수정된 답변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기사가 그릇된 것으로 고발된 후 약 4개월 동안에 제출되었고, 그 명예훼손적인 혐의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대되었다. 그래서 원해의 혐의가 축소되지 않고 증언부연되고 확대되었다. 둘째, 최초의 공표가 있을 후 그리고 소송이 계류중인 약 15개월 동안, 원고가 크레딧 그룹의 강연에 참가한 것을 탐지한 각 피고는 원고가 이 공표와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찾았고, 입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관한 「사실적」 공표를 뒷받침하는 다른 피고들에 의해 공표되고 배포된 기사를 썼다. 배심은 그 기사가 원고에 대해 악의와 범의로 가득 차 있었고, 고용주들이 원고의 취업을 거부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쓰여졌다는 판단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최초의 공표에 따른 또 다른 점에서, 피고 각자는 원고가 유명한 항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한 영화에 일하려고 하자, 그 영화에 관여하고 있는 유명한 라디오 해설자를 초청했다. 피고 각자는 그를 초청한 목적이 「친구(레이놀즈)의 어떤 사실」을 그에게 밀고 함으로써, 원고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라디오해설자가 「그의 판단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그 기사의 최초의 공표와 그에 대한 여러 번의 재판이 있을 후 4년 남짓 되어서 원고가 국가적으로 거물급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예우를 받는 공적 기능을 지닌 초청연사로 초대된 후에, 각 피고는 다른 예정된 초청연사인 전직 장관과 접촉해서 「그의 수중에 있는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는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찬회의 주빈과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만찬이 끝난 후에, 피고는 많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는 한 뉴욕 지방신문의 스포츠담당기자를 초청해서 기사가 원고에 대한 그의 「판단」과 원고가 공약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것에 관해 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했다. 피고는 그 행사와 관련해서 후원하는 조직의 회원도 또는 임원도 아니었다.